

◇ 서 평

중국 과학기술사에 대한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기획, 그 가능성과 한계

서 소 영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 Francesca Bray,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Frank Dikötter, *Sex, Culture and Modernity in China: Medical Science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 Identities in the Early Republican Period*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95).

1. 글을 시작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과학지식의 성격을 비판하고, 과학기술사를 재구성하려는 연구경향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롭고 낮은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 과학사 저널인 *Osirias*와 역시 대표적 기술사 저널인 *Technology & Culture*의 1997년 특집호 논문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비판과 해체의 페미니즘 과학학¹⁾이 이미 한 세대의 업적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건설적, 대안적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페미니스트 과학학자들은 과학 이론내에서 남성과 여성, 성(sex)과 성차(sexual difference)가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고, 세포 내 핵과 세포질간의 상호 작용처럼 표면적으로는 성별화 되지 않은 영역들이 어떻게 성별화 된 이미지와 상징으로 이론화되는가라는 점들도 분석했다. 빅토리아 시기 잉글랜드의 근대적 식물학이 체계화 되는 과정이라든지, 린네의 분류체계에서 ‘포유류’라는 명명법이 출현하게 된 배경, 각 과학분야에 여성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에 대한 분석, 혹은 가사기술과 노동 분업이 성별화되는 방식 등에 대한 역사적 분석들도 시도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과학 지식의 형성과 변용에 과연 성별화된 언어, 관습,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인식론적 문제들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보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페미니스트 과학학이 실제 여성 과학 기술자들과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을지, 혹은 대안적 지식형태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²⁾

1) Feminist scholar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약칭하여 페미니스트 과학학자라고 명명하겠다.

2)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연구사적 의의는 Sally Gregory Kohlstedt & Helen Longino, “The Women, Gender, and Science Question: What do Research on Women in Science and Research on Gender and Science Have to Do with Each Other?,” *Osirias* 12 (1997), 3-15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각주에 인용된 논문과 저서들은 거의 그 분야의 주요 논저들이다. 또한 향후의 전망 및 페미니스트 과학학자들과 실제 여성 과학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Londa Schiebinger,

특별히 과학사(일반 역사도 포함)와 관련해서 이들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젠더의 문제가 과학사 서술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단지 '여성의 이야기(women's story)'를 기존의 歷史像 내에 끼워 넣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관계 맺는 방식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자고 주장한다. 성별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이며 사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며 각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지식, 언어의 영역과 상호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젠더의 문제가 지난 십수 세기동안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녀의 성별을 둘러싼 지식과 권력의 관계, 혹은 지식과 일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

젠더와 더불어 페미니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섹슈얼리티, 혹은 성적 정체성 형성의 문제이다. 특히 16-17세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의학적 담론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근거한 성차의 진리체계를 정교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구 근대인의 자아정체성은 섹슈얼리티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푸코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서구 역사에 대해 던진 질문은 곧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자연화, 본질화도 거부하고 인간의 성을 둘러싼 지식과 권력의 복합적 관계 맺음을 살펴 보려는 것이었다. 섹슈얼리티의 역사... 거기에는 단순한 풍속의 역사나, 성관행의 역사 이상의 것을 고찰하려는 의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⁴⁾

브레이와 디코터의 책은 이러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 틀을 각각 중국의 16-19세기, 20세기에 투영해서 쓴 책이다. 저자 자신들은 이러한 분류를 별로 달가와하지 않았지만 굳이 분야를 설정하라면 브레이의 책은 기술사 분야에 그리고 디코터의 책은 의학사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 서구 학계의 이론적 논의들을 심분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작업이 역사 서술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국 기술사 혹은 중국 의학사와는 '다른 역사상'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과연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기획의 축으로 놓고 역사를 재구성 하면 얼마나 어떻게 다른 像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의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자.

"Creating Sustainable Science," *Ostris* 12 (1997), 201-216 을 참고할 것. 기술사 분야에서는 Nina Lerman, Arwen Palmer Mohun, Ruth Oldenzile, "The Shoulders We Stand on and the View from Here: Historiography and Directions for Research," *Technology & Culture* 38, no. 1 (1997), 9-30 이 연구사적 의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연구동향을 소개한 국내 논문으로는 김미경, "평등한 과학을 위한 페미니즘," 『창작과 비평』, 제94호(1996)을 참고할 수 있다.

- 3) 젠더 분석에 근거한 역사서술에 대해서는 Joan W. Scott,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 no. 5 (1986), 1053-75 를 참고할 것. 스코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4)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소개한 국내의 글로는 미셸 푸코, 이 규현 옮김, 『성의 역사』 제 1권 앞의 의지 (서울: 나남, 1990)의 서문 부분이나, "여성학 용어사전—Sexuality, Sex, Gender," 『여성과 사회』 제4호 (1993), 270-278, 황정미, "섹슈얼리티의 정치," 『사회비평』, 제13호 (1995), 119-138 을 볼 것.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것은 아니며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들 또한 모두 페미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황정미 편역,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서울: 새물결, 1995), 서문 및 제 2장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5) Francesca Bray,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1, Frank Dikötter, *Sex, Culture and Modernity in China: Medical Science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 Identities in the Early Republican Period*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95), 12-13 을 볼 것.

2. 『기술과 젠더』

2-1 Gynotechnology를 위한 전제들

브레이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몇 가지 서술 전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브레이의 기술론이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 개념은 대략 인공물(artifact), 체제(system), 사회적 구성물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브레이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한 사회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기제'라고 주장한다. 브레이는 물질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의미세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물질적 자원에 대한 합리적 지식의 적용'으로서의 기술보다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의미체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특정 기술을 사용하면서 특정한 의미의 층위들을 형성하게 된다. 브레이는 이처럼 일상 생활의 의미와 관련된 기술, 구성원들의 주관적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기술을 포착하려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젠더와 기술을 접합시키려 하는 것이다.⁶⁾

나는 누구인가? 아무개의 자식이거나 아무개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일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특정 노동을 하면서 보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식의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나는 586 pc 노트북의 사용자이며 인터넷과 pc통신의 애호가이고 소형 자가용의 운전자이면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와 전기면도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공물들의 지식, 운용형태들이 나의 나뉘에 기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그 사회의 성별체계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브레이는 이러한 질문을 비서구 전근대 사회의 일상에 투영하면서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기술과 성별체제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 한다. 그녀가 사용하는 "gynotechnology"란 용어는 바로 이렇게 여성에 관한 관념과 관계,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그 사회의 젠더 체계 및 사회적 위계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일련의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다.⁷⁾ 따라서 그녀의 저서 전반에서 다루지는 기술의 범위는 상당히 확장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이의 젠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잠시 스콧(Joan W. Scott)의 논의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역사적 젠더 분석을 수행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스콧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⁸⁾ 스콧은 성적 불평등의 기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 미시적으

6) Bray, 위의 책, 2-3 을 볼 것.

7) Bray, 위의 책, 4.

8) 젠더라는 용어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생물학적 성(sex)과 구분되는 사회적 성의 대명사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그 개념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자들에 따라 젠더 혹은 젠더와 성(sex),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계는 다르게 정의된다. 따라서 젠더의 개념 정의의 문제는 차치하고 여기서는 다만 젠더를 역사 분석에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Scott, 앞의 논 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Joan W. Scott ed., *Feminism and History* (Oxford: Oxford Univ. Press, 1996) 의 서문에도 약간의 수정 후 그대로 게재되었다. 발표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개별적 사건에 대한 서술보다는 서술방법론(historiography)을 주로 다루고 있고 다른 역사학 논문과는 달리 논문의 3/4 이상을 이론적 언급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까지 여성사 연구자들의 글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물론 스콧의 주장에는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남희, "서구 여성사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1994)를 볼 것. 이남희는 *Sign* 지에 실린 린다 고든(Linda Gordon)과 스콧의 대담 등을 소개하면서 스콧의 방법론이 아직은 의욕이 더 큰 편이지만 여러 여성사가들에 의해 그 유효성이 모색되고

로 전개됨과 동시에 그 사회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와 관련된 요소임을 주목하면서 젠더는 “성차의 인식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의 구성적 요소이며 동시에 그 집단 성원의 권력관계를 설정하는 근본적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성차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의 구성적 요소들은 다시 특정 사회의 상징들, 규범들, 제도와 조직, 주관적 정체성(subjective identity)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된다. 젠더 분석에 근거한 역사연구는 일차적으로 이상 네 가지 요소들의 상호 작동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다.⁹⁾ 또한 스콧은 다양한 차원의 권력 관계가 각인되는 場(field)으로서의 젠더 분석도 강조하고 있다. 스콧은 젠더 개념이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삶의 상징적, 구체적 조직과 인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젠더는 권력이 행사되는 하나의 기제가 아니라, 권력의 개념과 구조(construction) 그 자체에 함축(implicite)되어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¹⁰⁾

브레이가 자신의 저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젠더 분석은 이러한 스콧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브레이는 젠더에 기인한 권력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여성 전체를 단일한 집단으로 놓고 피억압의 구조적 양상들만을 묘사하거나 피해자로서의 여성들만을 부각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그녀는 구조적 한계내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불평등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주체적인 행동양식들을 꾸려 나아갔는가에 주목하려 한다.¹¹⁾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는 여성들의 일상과 기술에서 권력 저항적이거나 대안적인 경향의 단초들을 쉽게 찾아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칫 현재 페미니스트들의 바램을 역사속으로 투영하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브레이는 여성들 간의 차이도 간과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사료의 한계 상 브레이가 서술할 수 있는 여성들은 주로 엘리트 계층 혹은 상류계층의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물질적, 문화적 위치는 하층계급의 남성들보다 진전된 형태였다. 따라서 성차에 근거한 사회 문화적 위계는 남/녀의 단순한 이항대립을 넘어 계층적, 지역적 위계들과 더불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브레이의 『기술과 젠더』에서 언급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녀가 비서구사회의 과학기술을 다루는 태도이다. 그녀는 보다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브레이의 니덤(Joseph Needham) 비판이다. 브레이는 니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니덤의 중국과학사 연구 관점이 무엇보다도 서구 과학의 보편성과 중심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기획을 경계하고 있다. 브레이는 “니덤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근대(서구) 과학의 분야들과 일치하는 지식 구조의 한 발전 모델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는 중국의 선구자들만을 받아들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단절되었다”라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인류 진보의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함으로써 모든 기술과 지식의 역사적 체계를 유럽인의 경험에 기반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라고 비판한다. 브레이는 다른 역사적 가능성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배 담론(master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9)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cott, 위의 논문, 1067-1069를 참고할 것.

10) 스콧은 색슈얼리티와 권력관계를 분석한 푸코 보다는 브리디외의 논의에 주로 근거해서 자신의 권력/젠더 관계를 상술하려 한다. 그녀의 관심이 권력의 행사보다는 권력이 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각인되는 방식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스콧은 젠더만이 권력 위계의 유일한 요소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력에 내재된 젠더의 의미체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일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콧은 권력/젠더관계가 계급, 인종 등과 더불어 역사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cott, 위의 논문, 1069-1070.

11) 이러한 관점은 *Journal of Women's History*에 실린 중국(여성)사가들의 관점과도 동일한 것이다. 이들은 서구의 경험에 기반한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해방’, ‘전근대와 근대’의 이분법적 구도를 함부로 중국 여성의 역사에 투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족에 대한 Dorothy Ko의 논문은 그 좋은 예이다. Dorothy Ko, “The Shifting Meaning of the Body as Attire: Footbinding in Seventeenth-century China,” *Journal of Women's History* 8, no. 4 (1997).

12) Bray, 앞의 책, 6, 351-388.

narrative)'의 구축에 반대하면서, 지배 담론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국소적 의미(local meaning)를 강조한다. "비판적 기술사는, 상대적인 위계들(혹은 자민족중심적인 판단들)을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대안적 구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위해 기술체계의 국소적 의미들을 탐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¹³⁾

2-2. Gynotechnology의 내용: 공간, 노동, 재생산

이러한 기술관, 젠더, 문화 상대주의적 과학관을 기초로 브레이는 "gynotechnology"가 구축되는 세 영역—공간, 노동, 재생산—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 영역들은 각각 다루어졌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제 1부에서 브레이는 중국인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공간인 가옥(house)의 구조와 공간에 어떤 의미들이 각인되고 전수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브레이가 보기에 청대의 가옥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도 아니며, 서구 산업화 시기에 전개되었던 것 같은 엄격한 공적영역/사적영역의 분리가 진행된 곳도 아니었다. 서구의 "가내(domesticity)"라는 개념으로는 중국의 주거 공간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대의 가옥은 사적 영역일뿐 아니라 국가 체제를 지탱하는 종교와 도덕, 경제 활동이 모두 전개되는 곳이었다. 풍수에 기반한 우주관과, 조상숭배의 각종 제례, 요리와 양육, 교육, 학습과 문화 생활 등 물질적, 문화적 재생산이 이뤄지던 장소였던 것이다.

브레이는 중국 가옥 구조의 '중국적(chinese)' 특성이 본질적이고 고유한 형태로 전수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다양한 지역차와 빈부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대의 중국인 가옥 문화에는 대략 송대부터 확립되어 온 공통의 의미 구조들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강력한 규범이 가부장제(patriarchy)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우선 여성들의 공간을 담으로 둘러 싸 분리하여 엄격한 성별 공간의 격리를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히 '내(內)'와 '외(外)'를 구분하는 것일뿐 아니라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윽고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당시 일반인 수준에까지 강화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형태로 강화되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삼강오륜에 규정된 夫와 婦의 관계는 상보적이면서도, 불평등한 것이었고 모든 여성들은 재산 상속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와 불평등을 기반하고서야 결혼 한 남성의 합법적 시민(civic)성이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당의 위치와 규방의 위치 등은 모두 이러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¹⁴⁾

이를 분석하기 위해 브레이는 특히 祠堂과 부엌에 주목하고 있다. 사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부계로만 계승되는 '계통'의 역사,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의 규합을 뜻하며 끊임없는 여성 배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 기독교 문화가 성당과 교회라는 종교적 제의 공간을 외부에 설정했던 것과는 달리 청대 가옥 구조에는 인격화된 조상 神의 통치를 규범화하는 공간이 일상속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근본적인 규정을 부과하는 요소였다는 것이다. 또한 부엌은 여성들의 주된 활동 공간이자 여러 가지 가사기술과 요리들이 생산되는 장소였는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아궁이를 둘러싼 신화들과 관습들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신화 속에서 아궁이를 주관하는 神은 초기엔 여성으로 묘사되었으나 송대를 지나 명-청대로 가면서 모두 남성 神 혹은 더욱 강한 남성 神과 결혼한 여성 神으로 묘사되었다든지, 이렇게 남성화된 神이 여성들의 부엌 언어

13) Bray, 위의 책, 9-11, 인용된 부분은 필자의 번역이다.

14) Bray, 앞의 책, 91-96, 122-126.

(수다스러운 말), 행동들에 대해 일련의 규범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분석했다.¹⁵⁾

그 외에도 브레이는 여성들이 시를 쓰고 공부하는 활동, 집안을 장식하고 가구를 배치하는 문제 등을 청대의 가부장제와 연결하여 분석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의 완벽한 통제를 위해 구획했던 공간이 여성의 문화(文)를 개발하기 위한 독자적 대안의 공간으로 전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清代 여성들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억압적이고 정교했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억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부로부터 뚫고 나올 어떤 종류의 힘을 갖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다만 청대의 엘리트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분리된 공간 내에서 보편적 가치였던 文을 숭상(독서)하고 자신만이 쓸 수 있었던 지참금을 운용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대안을 꾸려 나아갔던 것이다.¹⁶⁾

제 2부에서는 여성의 직조노동을 분석했다. 브레이는 중국 여성의 직조 노동—견직과 면직 중심의—과 생산 기술이 宋代 이후의 상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여성 자신을 주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에게 노동은 곧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이었다. “男耕女織”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시대 중국 여성의 노동은 가내의 재화를 생산할 뿐 아니라 세금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직조 노동은 조면, 방사, 방직 등의 면직 기술과, 누에치기, 실잠기, 비단 짜기, 자수, 옷 만들기 등 다양한 노동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의 직조노동과 옷 만드는 기술은 “여성 고유의 일”로 여겨지면서 明代 이전까지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대 이후 일조편법의 시행으로 부세의 방식이 화폐로 단일화되고,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 노동의 의미도 변화하게 된다. 특히 견직업의 경우, 농촌 여성의 노동력은 숙련된 직조공이나 견직 생산의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명주실을 열레에 감고(reeling) 실을 잣는(spinning) 보조적 노동력으로만 남게 되었다. 남성들이 기술자로 그리고 운영자로 견직 생산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 노동의 내용과 가치는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별분업의 양상은 지역에 따라, 상업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여성 노동의 변화에는 그 사회의 성별 구도가 반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이 여성의 일인가?’ 그 실체는 모호했다. 수익이 좋고 가치가 있는 일은 남성이 지배했으며 여성들이 지배적이었던 기술 부분은 곧 그 가치가 하락되었다.¹⁷⁾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재생산(reproduction) 기술이 분석되었다. 브레이는 “각 사회는 그 나름대로의 재생산 기술을 갖는다”라고 전제하면서 청말의 생식 관행과 모성의 의미를 서술했다. 청대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전수되던 여러 가지 출산 통제 방법들, 예를 들어 영아살해 및 태아살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물처방, 성적 절제의 관행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생식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여성들이 규칙적인 월경을 통해 피의 순환을 활발히 하고, 生(생식적인 능력) 뿐 아니라 養(삶을 개발하고 아이를 기르는)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건강에 관한 규범에는 이처럼 생물학적(生) 측면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고양을 통해

15) Bray, 위의 책, 96-114.

16) Bray, 위의 책, 136-150.

17) 상업화와 관련된 중국 여성의 직조 노동이 중국 농촌경제의 특수한 저발전(involution)에 기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장강 삼각주 지역을 분석한 Philip C. C. Huang, *The Peasant Family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Yangzi Delta, 1350-1988* (Taipei: SMC Publishing Inc, 1990), 55-57 을 참고할 것. 황의 농촌 경제 연구는 유일하게 젠더 분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브레이에게 평가받기도 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단지 젠더 요소를 지적하는 정도였을 뿐, 저서 전체의 주장(특히 화북 지역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증되지는 못했다. 물론 황의 주된 목적은 농촌 여성노동력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정화”된 생산양식의 강조에 있었다. 그러나 “가정화”의 핵심이 성별분업에 있었기 때문에, 면직, 견직의 각 노동 과정에 나타난 젠더의 위계는 분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획득해야 할 문화적(養)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⁸⁾ 브레이가 생물학적인 것 뿐 아니라 사회적인 모성의 특성을 지적하는 면도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청대 중국 여성들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모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결코 모든 아내들의 책임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청대는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첩을 둘 수 있었고 하녀 역시 증도와 매매가 가능했다. 이러한 여성들 내의 위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억압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엘리트 여성들에게는 모성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즉 교육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생물학적 모성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저자는 해석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모성의 가능성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즉 한 남자에게 아내와 여러 명의 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거나 대를 잇는 아들을 출산함으로써만 가계 내 '부인'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당시 사회의 젠더 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¹⁹⁾

이처럼 브레이는 공간과 노동, 재생산에 관련된 기술 및 관행들을 청대 사회를 관통하던 역사적, 구조적 남녀 위계에 비추어 조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중국의 성, 문화 그리고 모더니티』²⁰⁾

브레이가 공간, 노동, 생식을 통해 기술과 젠더의 관계 맺음을 재구성하려 했다면 디뢰터는 청말/민국 초에 증가한 성욕, 임신, 자위, 성병, 낙태, 오르가즘, 동성애 와 관련된 다양한 말들의 존재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는 민국 시기를 전후해서 중국의 정체(polity) 뿐 아니라 성에 관한 인식의 틀도 급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과학'이었다. 그는 19세기 말 중국에 도입된 근대 과학에 의해 남녀의 성차가 자연화 되는 과정, 성욕과 임신, 출산이 표현되는 방식에 주목했다. 특히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동성애, 자위, 혼외 성교 등의 문제는 인구문제, 출산통제와 더불어 엘리트 집단에 의해 혼육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였다. 아울러 이러한 혼육의 방식은 20세기 초,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 "청년"의 근대적 자기정체성 형성에 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²¹⁾

이상의 분석 기획을 살펴 볼 때 디뢰터는 주로 푸코의 섹슈얼리티 논의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시기 성 담론의 폭발적 증가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시도했다는 점, 섹슈얼리티를 近代人(중국 청년)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점으로 파악한다는 점, 섹슈얼리티에 각인된 강력한 국가 수준의 억압 기제를 지적한다는 점, 섹슈얼리티는 19세기 서구 역사의 특수한 경험임을 인정 한다는 점 등이 그 증거이다. 결국 이 책의 의도는 'Sexuality in Modern China'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 자체를 서구의 산물로 보려는 저자의 관점으로 인해 이 책의 제목은 'Sex, Culture, and Modernity in China'가 되었고, 굳이 'Medical Science and the Construction of Sexual Identities in the Early Republican Period'라는 다소 긴 부제가 첨가되었다.

중국의 '섹슈얼리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 가지

18) Bray, 앞의 책, 326-331.

19) Bray, 위의 책, 335-368.

20) 디뢰터 책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서평 "중국적 섹슈얼리티의 모색," 『中國現代史研究』, 제 5집 (1998, 6)과 중복된다.

21) Diöter, 앞의 책, 1-10.

는 “담론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유동적 주체”의 단면을 마치 스냅 사진 처럼 포착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350 여 종류의 잡지, 신문, 교과서, 팜플렛 등을 분석했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 생산된 성 담론들의 의미, 상징, 규범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의 등장과 이에 근거한 ‘인식론적 분열(epistemic disjunction)’ 그리고 성에 대한 본질화 현상 등이 드러났다. 때때로 그것은 동시대의 서구에서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획일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다.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유물론적인 과학 언어로 묘사되면서 초야에 대한 이해, 멘스 중의 성교, 성교 중의 남성의 주도권, 오르가즘 등 여러 가지 성 관련 지식들이 정량화되거나 ‘과학화’되었다. 회임과 출산의 전 과정은 병리학적인 과정으로 대치되었으며 개인의 쾌락보다는 집단의 성숙한 생존을 위한 생식(reproduction)이 주로 강조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부부-개인을 잇는 위계적 통제 기제도 일관되게 강조되었다.²²⁾

그런데 디코터는 이러한 성에 관한 담론이 ‘유동성’을 통해서만 제대로 포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류학자 David Parkin의 ‘격자화된 지식(latticed knowledge)’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조합하며, 상호교합, 중첩, 반향하는 유동적 지식을 다루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이 반영하는 주체 역시 유동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폴 코헨(Paul Cohen)의 주장에 동감하면서 “서양과 동양,” “전통과 근대,” “충격과 대응” 등의 이분법적 개념으로는 당시의 역사상을 그려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서구’라고 불릴 만한 단일한 실체도 없으며, ‘전통’이라고 불릴 만한 중국적 실체도 허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저자는 그동안 익숙하게 여겨져 왔던 이분법적 구도를 포기하는 대신 다양성의 점점들, 즉 다양한 기원과 복수의 지향을 지닌 교합된 근대적 주체의 복수성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³⁾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중국의 근대는 매우 억압적이고 우울한 것이었다. 성은 쾌락과 별 상관없이 없었으며 생식의 일차적 기제로서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규범 하에서 개인의 성 관행 역시 권리와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훈육과 계몽의 영역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 개방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베이징 발 외신들은 종종 중국 청년들의 과격적인 성 관행을 개혁개방의 문화적 결과인 것처럼 보도하곤 한다. 하지만 저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성 논의는 민국 시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과학에 근거한 성의 자연화, 본질화 및 이에 따른 성차의 강화, 과학적 의학과 인구론에 근거한 획일적 성 관행, 그리고 억압과 훈육의 방식 등 중국에서 성은 여전히 도전 받지 않는 권력의 통제 기제라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저자의 분석에 동의한다면, 중국 ‘섹슈얼리티’의 특색은 개인과 제도적 권력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음 세기 중국 정체(polity)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결절점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푸코의 섹슈얼리티 개념을 비판하면서, 섹슈얼리티와 근대성(modernity, 국내의 번역에서는 이를 현대성이라고 지칭)을 개인적-제도적 “성찰성”에 근거해서 모색하려는 기든스의 입장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든스에게 섹슈얼리티는 억압과 통제의 기제만은 아니었다. 그는 개인과 사회 전체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성의 성찰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운명 지워지고 무조건 따라야 할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개인이 끊임없이 조정하고 결정하는 ‘조형적(plastic) 섹

22)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Dikötter, 위의 책, 제 2장, “The Passive Sex: The Naturalization of Gender Distinction” 부분을 볼 것.

23) Dikötter, 위의 책, 12.

24) Dikötter, 위의 책, 180-186을 볼 것.

슈얼리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서구 사적영역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근대성(modernity)의 대안이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고 보고 있다.²⁵⁾ 그러나 디코터가 서술한 중국의 '섹슈얼리티' 내에서는 좀처럼 성찰 가능한 '개인'의 영역을 확인할 수 없다. 기든스의 안목을 빌려 디코터의 서술을 다시 읽어 보면, 중국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중국 시민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중국 민주주의의 전망을 모색하게 하는 하나의 지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4. 젠더 및 섹슈얼리티 분석의 몇 가지 문제들

확실히 역사 속에 투영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기획은 이전의 서술에서 간과 해 왔던 성별 혹은 성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브레이와 디코터의 저서가 어떤 독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과학사/기술사(혹은 역사)는 이리러리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定義가 뚜렷한 독자일수록 실망의 영역은 더욱 넓어 질 것이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차사료의 문제다. 브레이가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료들은 이미 다른 연구자들의 저술 문헌에서 발췌된 것들이 많았다. 새로운 사료를 개발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사실(fact)을 제공하는 다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 성과와 사료 분석의 결과들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 브레이의 전략이다. 예를 들어 『기술과 젠더』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朱子家禮』를 비롯하여 송대에 쓰여진 목수들의 편람, 청대 문인의 문집, 일본인들에 의해 쓰여진 청대 중국인들에 관한 풍속집 등이 주 사료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루이텐벡(Klass Ruitenbeek)의 중국 목공업에 관한 연구, 코(Dorothy Ko)의 엘리트 여성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사료 분석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⁶⁾ 또한 재생산 기술과 모성을 서술한 세 번째 부분에서도 실제로 브레이가 언급한 일차사료는 『황제내경』과 medical case history이며, 이를 통해 저자가 포착한 것 역시 ‘생리적 주기성에 관한 강조’인데 이는 브레이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퍼쓰(Charlotte Furth)의 논문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²⁷⁾ 여성들의 직조노동을 분석한 두 번째 부분에서도 주된 사료는 퉁(Tong Shuye)의 『中國手工業商業發展史』에 기초했고, 쿤(Dieter Khun)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말아 저술한 전직기술 부분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⁸⁾ 그 외에도 중국의 과학기술, 문화, 경제 등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25)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기든스의 ‘현대성’에 관한 논의는 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서울: 새물결, 1996)의 서문 및 2장, 황정미, 앞의 논문(1995)을 참고할 것.

26) Klass Ruitenbeek, *Carpentry and Building in Late Imperial China: A Study of the Fifteenth Century Carpenter's Manual Li Ban Jing* (Leiden: E. J. Brill, 1993),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 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95).

27) Bray, 앞의 책, 330-332 특히 각주, 35-36 등을 볼 것. 퍼쓰의 연구에 대해서는 브레이 책의 bibliography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Charlotte Furth, “Blood, Body and Gender: Medical Image of the Female Condition in China 1600-1850,” *Chinese Science* 7 (1986), 43-66 을 참고할 것.

28) 대표적인 것으로,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9, Textile Technology part I: Spin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이나 Dieter Khun, “Silk Weaving in Ancient China: From Geometric Figures to Patterns of Pictorial Likeness,” *Chinese Science* 12 (1995), 75-112

물론, 브레이가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단지 취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브레이의 책 전반에는 그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내는 일관된 기획과 관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옥구조, 직조기술, 생식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좀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원했던 독자들은 기대했던 것 만큼의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술 경향은 비단 브레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기술사학자인 노블(David F. Noble)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장기 지속되고 있는 서구 과학기술 문화의 특수성을 추적하기 위해 이 천 여년에 달하는 서구 역사를 젠더 분석하면서, “이 연구는 일차사료 보다 다른 연구자들의 작업에 의존했다 …… 이 천년 간의 역사를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눌려, 나는 일찍부터 특정 시기의 역사를 전공해온 학자들의 권위에 충분히 의거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⁹⁾ 따라서 사료의 발굴 및 일차사료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 역사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는 브레이(또는 노블)의 책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건들 사이의 인과성 문제이다. 이는 주로 디코터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디코터의 책을 읽다보면 독자들은 금방 몇 가지 의문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의문의 원인은 저자가 다루는 각 주제들—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규정, 전통적 규범과 과학적 인식간의 변화, 인구문제와 출산통제, 질병(성병)관, “청년”이라는 근대적 정체성의 등장, 가족을 통한 국가의 통제—이 매우 복합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임에 반해, 저자의 서술은 그 현상에 대한 “말”들의 나열과 특징 규명에 머물렀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전통적 성 개념 및 관행들을 설명하는 부분과 다양한 논쟁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성 담론의 다양한 층위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결코 전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성차와 신체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새로운 이해는 서구에서보다 더 경직된 과학주의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 중국 나름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라퀴(Thomas Laquer)가 성차와 관련하여 19세기 서구 신체 인식의 주된 변화로 파악한 양성모델(two-sex model)이 중국에서는 결코 지배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남녀의 몸에 대해 단성모델(one-sex model)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³⁰⁾ 아울러 산부인과학의 확립이나 인구문제의 대두 등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미 청대부터 성장해오던 학술적, 문화적 관행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전통들은 그냥 단절되었는지, 변용의 근거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 전통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과연 17-18세기에 등장하고 성장한 것들인지, 아니면 더욱 장구한 시대를 관통해 온 ‘중국적’ 가치관 및 문화적 습속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담론상의 급진성은 실제 어느 정도 급격한 관행의 변화들을 초래했는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산적해 가지만 저자는 단지 급격한 단절도 아니고 이유 있는 연속도 아닌 “혼재”의 양상만을 서술했다.

또한 담론분석을 지향하면서 논쟁의 사회사적 의미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특정 주제에 대한 논쟁의 흔적은 제반 세력 관계들의 상세한 지도일 수도 있다. 화학용어가 중국에서 번역되는 과정 역시, 50 여년을 지속한 지루한 과정이었는데 그 논쟁의 핵심에는 “무엇이

29) David F. Noble, *The World without Women: The Christian Clerical Culture of Western Sc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xvii를 볼 것. 노블의 책은 번역되지 않았지만, 마거릿 버트하임 지음, 최애리 옮김, 『피타고라스의 바지』 (서울: 사이언스 북스, 1997)의 기본 입장은 노블의 것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것을 참고할 수 있다.

30) 라퀴는 남녀의 신체가 한 몸의 이항 대립체로 묘사(one-sex model)되다가 서로 이질적인 두 몸으로 묘사(two-sex model)되는 단절을 19세기 서구 젠더의 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homas Laquer, *Making Sex: Body and Gender from the Greeks to Freud*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0), ch. 1을 참고할 것.

객관적으로 맞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가”를 타협했던 여러 집단들 간의 지난한 정치적 과정들이 엿보이고 있다.³¹⁾ 그런데 1920-30년대에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출산통제의 문제와 민족 개조 및 우생학적 논의라든지, 남성의 성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의 차이들을 저자는 단지 “논쟁(debate)”이 있었다는 간략한 언급만으로 지나쳐 버렸다. 1890년대 이후 거의 100여년 동안의 미국 출산통제의 역사를 다룬 고든(Linda Gordon)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연구 역시 수많은 “말”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녀는 출산통제의 쟁점을 둘러싼 여러 집단의 사회적 행태에 주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산통제의 역사는 단순한 여성의 역사가 아닌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또 하나의 정치사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³²⁾ 이렇듯 논쟁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관계와 정치적 노선을 반영하는場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담론 분석은 이러한 쟁점들을 방기해 버렸다. 담론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건들 사이의 인과성 문제는 간과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따라서 사건들 간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역사서술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론과 역사서술 간의 관계 혹은 역사학과 타 분야 간의 관계이다. 브레이와 디코터 저서의 서론 부분을 읽어 본 독자들은 중국/일본/유럽 史學者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흔히 사회과학자, 인류학자 혹은 철학자로 분류—물론 이러한 분류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하는 학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주눅이 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할 것이다. 브로델은 말할 것도 없고, 푸코와 부르디외, 기어츠, 엘리아스, 엘만, 필립 황, 스콧, 에브리 …… 이들의 주장이 모두 저자들의 기획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되니, 독자들 역시 이들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와 디코터가 이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인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학문 풍토에서는 철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각 학문 영역의 경계 나누기가 익숙한 터라,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화두로 간학문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나는 브레이와 디코터의 저서는 자칫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론과 역사’의 관계 혹은 역사서술과 타 학문간의 관계는 분명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브레이와 디코터의 이론 지향적 기획이 역사서술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스콧이 언급한 것처럼, 젠더 기획에 입각한 역사서술은 기존의 학문 체계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야기인가? 무엇을 규범이라고 볼 것인가?를 보다 명료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타 학문 분야들의 연구와 이론 연구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라면, 브레이와 디코터의 다소 무거운 서론은 통독의 장애요인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31) 1932년 중국에서 제정된 “化學命名原則”의 합의과정을 소개한 증소문, “二十年來中國化學之進展,” 『科學』 제 19권, 제 10기 (1934), 1514-1554의 글은 그 좋은 예이다.

32) Linda Gordon, *Women's Body, Woman's Right: A Social History of Birth Control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1974)의 서론 부분과 Second ed.의 16장 등을 볼 것.

5. 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역사와 이론의 관계에 관한 재미있는 논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평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필립 황의 “이론과 근대 중국사 연구: 네 가지 함정과 한가지 질문(Theory and the Study of Modern Chinese History: Four Traps and a Question)”은 사료에 파묻힌 전통적 역사학자임을 표방하면서도 이론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자신의 작업에 차용하려했던 한 학자의 경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중국사 연구에 이론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 이론의 무비판적인 적용’, ‘이데올로기적 전제’, ‘서구 중심주의’, ‘문화주의(중화주의 및 상대주의적 문화연구를 지칭)’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할 만한 새로운 문화사, 대안적 역사서술의 개념을 주장했다.³³⁾ 황은 그 대안을 “패러독스”라고 지칭했다. 패러독스란 중국사의 특수성을 지적한 것으로, 일반적인 서구 이론적 틀에 맞지 않거나 이론적 예상에 상반되는 역사적 현상을 지칭한 것이다.

황이 보기에 서구의 중국학자(synologist)들은 태생적으로 서구 경험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중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상업화’가 발전한 곳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으로의 질적 변환을 고려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맹아를 찾아 ‘시민사회론’이나 ‘공적 영역’을 도입해보기도 하며, 清代의 행정관(magistrate)에게 서구의 법제적 합리성을 기대해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에 기반한 이론적 틀로서 중국사를 이해하게 되면 역사학은 늘 이론을 검증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나름의 존재 방식을 개념화 할 필요가 있는데 황종지는 이것을 서로 이질적인 두 항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발전 없는 성장(growth without development)”이라든지 “시민사회의 발전 없는 공적 영역의 확장(the expansion of the public realm without the development of civic society).” “실용적 도덕주의(practical moralism)” 등이 그것이다.

결국 황의 패러독스 개념은 이론과 역사, 중국과 서구의 모호한 경계에서 학문적 긴장을 유지하려는 한 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학사에 대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기획도 이러한 황의 입장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록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서구의 학문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지만 이를 통해 비서구 사회의 과학, 기술, 문화를 조명했을 때는 서구의 경험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歷史像, 혹은 패러독스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이와 디퍼터도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코헨(Joanna Waley-Cohen)은 브레이의 책이 복합적 맛(complex flavor)을 내는 최고급 요리와도 같고 중국 여성의 삶에 깃들인 모호성(ambiguity) 및 신유가 사상의 여성관이 기반하고 있는 복잡성들(complexities)을 포착하는 면에서도 탁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⁴⁾ 하지만 나는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사 속의 남성/여성 관계가 별로 모호하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다 아는 얘기를 무척 길게 서술하는군”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독해의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내며느리의 위치, 대를 잇는다는 출산의 의미, 가부장으로만 이어지는 제사의 역사적 의미, 쾌락보다는 생식과 결집한 성, 개인보다는 늘 가족과 집단의 이익에 우선 순위를 내 주어야 하는 가치관 등 이들

33) Philip C. C. Huang, “Theory and the Study of Modern Chinese History: Four Traps and a Question,” *Modern China* 24 no. 2 (1998). 황의 ‘패러독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Philip C. C. Huang, “The Paradigmatic Crisis in Chinese Studies: Paradoxes in Social Economic History,” *Modern China* 17, no. 3 (1991)을 볼 것.

34) Joanna Waley-Cohen, “Book Review: Francesca Bray,” *Isis* 89, no. 2 (1998), 332-333.

에게 낯선 이 모든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내 주위의 여성들을 장악하고 있는 '당연의 세계'이기 때문이다.